

농촌노인복지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수상(목사, 거창 중촌교회)

시작하면서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들어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는 2010년에는 9.9%,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거대한 실버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수명 70세가 보편화되는 고령화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 증가속도가 다른 인구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섬으로써 노인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도

시로의 인구 집중과 가족구조의 변화, 효(孝)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 내 노인부양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노인의 문제를 사회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다양화되는 노인문제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순지원적인 성격의 보호사업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의 한정된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의 한정된 복지재정과 인력으로는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글에서는 농촌교회가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실천적 접근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농촌교회의 노인복지사업 참여 수준

사회적으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대(對)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회참여의식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원규(1997)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정부나 복지기관들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계없이 교회는 사회봉사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91.1%)는 적극적인 사회봉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회의 봉사사업의 책임에 대해서도 86.8%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김기원(1997)의 조사에서도 86.2%가 노인문제에 교회가 직접 개입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사회복지 참여의식 또는 문제의식과는 다르게 교회의 사회사업 참여 실태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개교회의 성장과 교회부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사회문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회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교회의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노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사업을 보면 매우 한정적이다.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교회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 재가복지시설 운영, 노인대학 운영,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의 실천적인 영역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는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일부 제한된 교회만이 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한국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확대에 인하여 농촌교회에서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재가방문 및 지원, 식사 대접, 호스피스 활동, 빨래, 청소와 같은 노력봉사 등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어 개 교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2. 교회의 노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노인이해

농촌교회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은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들이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그들에게 접근하고 개입하는 방법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빈곤,

건강, 고독, 무위의 4고(四苦)로 설명된다. 그 중 노인문제를 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업과 관련된 것이다. 높아지는 연령과 함께 직장이나 농사에서 물러나 은퇴하게 되는 노인들은 점차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때론 노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연금제도 등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반면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무소득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노인들은 은퇴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사라지고, 빠른 사회 변화는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등의 차이로 인해 젊은 세대와의 대화 단절까지 초래하게 되면서 노인들은 심리적 고립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생물학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보통 한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호소한다. 만성적인 노인질환은 장기적이고 완치가 어려워 잦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지만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적 치료와 보호를 받기는 쉽지가 않다.

이러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공공부조 등의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적 서비스 보장의 측면에서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정책의 한계 또는 다양성이 부족한 만큼 교회는 국가가 미처 개입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보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농촌교회의 노인복지사업 참여 방향

교회는 노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노인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

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이 있음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소망이 있는 삶이 되도록 노인복지사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노년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대처를 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사회변화의 적응과 세대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농촌교회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에 대한 인식 전환

농촌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신, 불신을 떠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촌교회는 지역사회 내 모든 복지를 위해 교회가 앞장서서 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종교적인 성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 농촌지역사회를 향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농촌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노인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의 구제 또는 자선사업의 형태를 탈피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3) 농촌교회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농촌교회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교회내외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내외의 자원체계를 철저히 분석해

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지역사회와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교회끼리 연합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4) 보충적이고 잔여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교회가 지역사회내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역할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나 복지사각 대상이나 지역을 향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농촌교회가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영역

1) 노인의 심리사회적 영역

노인들은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소외 등으로 인해 무용성에 대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노인들에게 자아를 회복하고 유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죽음에 대한 신앙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생활지원 영역

제도적으로 노후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은퇴이후 수입의 상실이나 감소 등을 경험하면서 경제적인 곤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는 은퇴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노인의 역할회복 영역

노인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비생산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써 노인들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자존감 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들의 노화방지와 지적능력의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노인의 여가활용 영역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여성 80세, 남성 72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회 일선에서 은퇴한 이후 평균 20년에서 30년의 생을 더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노인의 생활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소일하며 보낼 것인가의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즐겨 찾는 경로당이나 공원 등은 단순히 시간보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노인들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경로당이나 공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적어 대부분은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교회는 주중에 교회의 공간을 활용하여 노인을 위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여가활용 프로그램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다 질적으로 높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5) 노인의 전문케어복지 영역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보호가 필요한 유병장수노인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높은 사회참여율,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이 집에 있다 하더라도 외출이 불가피하여 노인을 돌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노인을 돌보는 주단기보호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교회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는 교회가 자원을 투자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지역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도 있다.

마치면서

시기적으로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고, 교회가 노인 복지사업을 구체화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농촌교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권역별(노회, 지자체중심연합회)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은 물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촌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대상자가 교회출석노인에게 한정되어 있거나, 신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사회노인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열린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 노인들의 욕구나 지역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계획되어지고 있거나, 상당 부분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노인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농촌가 지역사회를 선교 대상화하여 복지를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차원에서 농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 글을 마치며 아쉬운 것은 농촌교회의 사회복지 현황 조사가 없고 구체적 대안 프로그램을 요구는 늘어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어 향후에는 농촌지역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사례들 조사 연구하고 정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❷